광주경찰, 출근시간 숙취운전 5명 적발

면허 취소 1건 · 면허정지 4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102건

광주경찰청은 13일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5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동시에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진행해 총 10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광주경찰은 5개 경찰서가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도로 22곳에서 단속을 진행, 이른바 숙취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운전면허 취소, 4명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날 오전 7시52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서광주로에서 A(5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근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0.1%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북구와 동구지역에서 각각 2건씩 총 4명이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펼쳐진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서는 운전자·동승자 포함 총 10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광주경찰은 이날 경력 총 152명을 동원해 숙취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택시와 시내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진행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시간대 장소를 옮겨가며 하는 스폿(SPOT) 단속방식을 강화하고, 출근시간대·대낮 음주단속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며 "밤늦게까지 과음했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겨울철 전기장판 안전사고 최근 3년 2411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3일 본격적인 추위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2015년1일~2018년 6월)간 전기장판과 관련해 접수된 위해신고 건수는 총 2411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위해 건수는 지난해 520건보다 많은 524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기온이 낮아지는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 절반(53%)이 넘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장판(913건·37.9%)과 전기방석(31건·1.3%)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10건 중 6건이 화재와 과열·폭발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장시간 피부 접촉 등으로 인한 화상이 667건(88%)으로 나타났다. 손상 부위는 전기장판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와 다리·발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접혀진 채로 오래 사용하면 내부 전선이 얽히거나 손상되어 불이 나기 쉽다. 그 동안 보관됐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기장판 등 열을 내는 전기 제품을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돼 위험하다.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의 접촉으로만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낮은 온도로도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접촉되면 저온화상을 입기 쉽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반팔과 반바지보다는 두께가 있는 긴 옷을 입고 담요 등을 깔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한다.

뉴시스

눈꽃 세상으로 변한 한라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13일 오후 제주도 제주시 오등동 한라산국립공원의 설경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광주지법 "광산구 제1금고 지정 공공성 · 공정성 침해"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신청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단 신청 내용 중 금고지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다.

농협은 가처분으로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을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한 뒤 지난 11월1일자로 금고지정 공고까지 마친 만큼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이뤄진 절차인 만큼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광산구 소속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인 지난 10월23일 국민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했다. 국민은행 소속 담당 직원이 입수한 명단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일부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금고지정과 관련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 개최 전 까지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심의위원 명단이 입찰을 주관하는 공무원에 의해 입찰에 참가한 일부 금융기관에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접촉까지 시도함으로써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 돼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산구 제1금고 지정을 위해 10월2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해 이뤄진 광산구의 국민은행에 대한 제1금고 지정은 사실상 무효라고 봤다.

제1금고 지정에서 탈락한 농협은 입찰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하자 등이 존재하다며 법원에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광주경찰청도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광산구 공무원 등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춘정 기자

터키, 기차 충돌 사고 4명 사망 · 수십명 부상

터키에서 기차 충돌 사고가 발생,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터키 관영매체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고속열차가 고가철도와 충돌하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하는 등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기차는 앙카라와 코냐 지역을 왕래하는 고속열차로 앙카라 마르산디즈 기차역에서 고가철도와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탈선해 피해 규모가 컸으며 일부 승객들은 아직 열차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충돌 후 고가 일부도 붕괴됐다.

현재 소방대, 구급대 등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獨 도로에 초콜릿 1t 유출 '초코 빙판' 이뤄

독일 도르트문트 인근 베를 지역에 있는 초콜릿 공장의 저장 탱크에서 1t 상당의 밀크 초콜릿이 유출돼 도로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당한 사고에 누리꾼들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연상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독일 수제 명품 초콜릿 브랜드 드라이마이스터(DreiMeister)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관계자는 탱크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1t이 넘는 액체 형태의 초콜릿은 공장을 넘어 도로까지 유출됐고, 영하권에 접어든 독일의 기온으로 인해 도로에서 빠르게 굳었다.

베를 소방 당국은 성명을 통해 "거리에 10㎡ 크기의 초코 팬케이크가 만들어졌다"며 "초콜릿 애호가들이 마음을 굳게 먹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약 2시간 동안 지역 도로를 폐쇄하고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삽과 25여명의 소방관들의 근육을 활용해 복구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횃불과 뜨거운 물을 활용해 초콜릿을 녹여가며 청소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 "가슴 아픈 사건이다"면서 "다행히 초콜릿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마르쿠스 루키 드라이마이스터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다음 주중에 공장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팀 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며 관심을 표했다. 트위터에는 "이번 사고로 오래된 거리에 초콜릿 같은 기쁨이 흘렀다"는 글도 올라왔다.

분쟁지역서 납치됐던 카메룬 대학생들 풀려나

지난 5일~10일에 납치되었던 카메룬의 바멘다대학교 학생 17명이 모두 풀려났다고 12일 밤(현지시간) 당국이 공식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다.

카메룬의 영어사용권으로 분쟁지역인 북서부 앙글로폰주의 렐레 리프리케주지사는 이 날 성명에서 "정부 당국과 사법기관, 해당 지역의 애국 시민들과 납치된 대학생의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구출 작전으로 납치되었던 대학생들 전원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정착촌 총격수배범 '팔'인 사살

이스라엘군은 12일(현지시간) 서안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지난 9일 일요일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며 총격을 가해서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수배되었던 팔레스타인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상자 가운데 한 여성의 임신한 아기가 이번 총격사건 때문에 조산으로 태어난지 몇 시간 만에 숨진 직후에 일어났다. 신 베트 보안 당국은 팔레스타인 수배범인 살라흐 바르구티(29)의 사살 이유를 "군의 체포 작전을 피해 도주함으로써 이스라엘 군에 해를 입히려 한 죄"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그 외에도 추가 용의자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일요일 밤의 총격사건은 팔레스타인인의 차량 한 대가 서안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구잡이 총격을 가해 7명에게 총상을 입힌 뒤 도주한 사건이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서안 지구에서 대대적으로 총격범에 대한 수색 작전을 펼쳐왔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입은 한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조기 출산했지만 이 남자 아기는 예루살렘의 샤레 제덱 병원에서 12일 숨졌다.